



보도자료 스크랩

2014. 05. 30 (금)

고향신문 16면

대한민국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합니다!

담당부서 국립영덕청소년해양환경체험센터 고객지원부

담당자 담당 신호진 (054-730-8556)

■총 1쪽 ■www.nymc.or.kr

구명벌 활용 체험활동, 해양안전의 첫 걸음! 국립영덕청소년해양환경체험센터, 구명벌 기증받아 해양체험활동 활성화 할 예정



국립영덕청소년해양환경체험센터가 씨그린선박설비로부터 해양안전장비를 기증받았다.

국립영덕청소년해양환경체험센터(원장 유홍룡, 이하 해양센터)가 지난 22일 씨그린선박설비(대표 최부식)로부터 귀중한 해양안전 기자재를 무료로 기증받아 눈길을 끌고 있다.

이번에 해양센터에 기증한 물품은 구명벌 2대 및 구명벌 운영에 필요한 이산화탄소 충전 실린더이다. 최부식 씨그린선박설비 대표는 “앞으로 해양센터에 방문하는 학생들 모두가 구명벌 사용법을 숙지할 수 있도록 청소년 지도자 선생님들이 힘써주시길 바란다”며 기증 의사를 밝혔다.

지남진 해양센터 대리는 “구

명벌은 한 대 가격이 300만 원을 넘는 고가의 장비이다. 또한 기증받은 구명벌은 단순한 체험용 장비가 아니라 실제 선박에서 사용되는 장비로 해양체험활동에 활용된다면 수준 높고 현실감 있는 교육이 가능할 것이다.”라고 전했다.

해양센터는 기증받은 구명벌을 활용해 학생들이 선박사고 시 대피요령을 청소년 눈높이에 맞춰 교육할 예정이다. 안전불감증이라는 고질병을 고치기 위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해양안전에 대한 관심, 그리고 반복적인 교육 훈련이다.